제 4 과 - 교회 모임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고 모든 그리스도인은 한 가족의 형제 자매와 같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디모데전서 3:15). 교회는 건물이 아니며 교회는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믿는 신자들의 몸입니다.

١.		: 예수와 믿는 신자들이 어떤 관계라고 말하고 있는가? (로마서 12:5)
	(2)	(에베소서 1:23)
II.	I.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위치는 무엇인가? (1) (에베소서 5:23)	
	(1)	

III.

교회의 기능:	당신의 할 일:
1. 예배 : " 하나님, 주님께 새로운 노래를 드리는 것.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에서 그를 찬양. (시 149:1)	예배 드리는 것
2. 교제 : "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선한 행동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자.(히 10:24)	나누는 것
3. 가르침 : "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 28:20)	배우는 것
4. 훈련 : "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2))	섬기는 것
5. 성령님의 능력: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행 1:8)	복음을 전하는 것

IV.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이루어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가?

참석해야한다.	참석하지 않아도 된다.	상황에 달려있다.
당시은 교회록 이루어	참석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있는	71?

- V. 우리는 왜 교회에 참석해야 하는가?
 - (1) 위의 Ⅲ 참조.
 - (2)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_____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 좇아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히 12:25)

서겨이 지기근보다 버시니지 아게 되다

- (3) 성경의 진리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된다.
- (4) 교회에는 서로 도와 줄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ш -14	910	II/N 시기야 할 건데 되 의꾸
1.	a. b. c.	는 "권리"를 실천에 옮길 필요가 있다 침례 예수님은 침례를 "권리"라고 말씀하신다. (Matt. 3: 15) 침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 받았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시인하고 증거하며 보여주는 것이다. (로마서. 6: 3) 침례는 우리가 죽었고 우리의 더러움이 씻겨지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로마서 6: 4)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또한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침례는 믿음의 결심을 확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옛 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구원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로마서 6: 6-14) 침례는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것이지 결코 죄를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얻는 것이다.
2.	a. b.	는 "의무"를 지켜야 한다 주의 만찬 예수님 스스로 성만찬을 하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 피 흘리시고 죽으신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다. (마태복음. 26: 17-19; 26-30)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 준다. "그가 받음으로 우리가 우리고, 그가 우리가 입었도다." (이사야 53: 5)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행위를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고린도전서. 11: 23-29)
3.	a.	는 제물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 현물 이 봉헌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표시이고 또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각 사람이 산 제사를 드리는 것과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물품을 드리는 것 그리고 돈을 드리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돈을 드리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이 믿는 신자들에게 주시는 시험이다. 돈을 드리는 것에는 3 가지 종류가 있다. : (1) 십일조 - 이것은 하나님의 요구이며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다.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하는 것이다. (레위기 27: 30 - 31) (말라기 3: 8) " 너는 나의 십일조와 헌물을" (말라기 3: 10) "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10 분의 9 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10 분의 1 은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 드려야만 하는 하나님의 것이다. (2) 은사를 드리는 것 - 이것은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며 얼마나 많은 은사를 드리기 원하는가는 본인 자신의 결단이다. 우리는 매번 빈손으로 아무런 은사도 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필요나 다른 필요한 것을 위해 돈을 드리는 것이다. 은사와 헌금을 드리는 것은 십일조로 대신 할 수 없다.